

AHP 분석방법을 통한 감성심리 기반의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결정

Study of the Priority of Baby Boomer Policy:
Emotional Psychology through Analytic Hierarchy

강주리¹ · 이충렬² · 황두경^{3*}

Ju-Ree Kang¹ · Chung-Real Lee² · Du-Kyung Hwang^{3*}

Abstract

As the social interes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increasing, this study derives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policy through identification of the need and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among baby boomers lifelong learning, taking into account such aspects of quality of life as emotional psychology-based self-development and self-realization. To optimally explore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for the baby-boomer generation, first-tier (top-level), sixth-tier (bottom-level), and five-other evaluation criteria were available. For the first layer, we examined whether potentiality or realizability was more desirable, and for the second layer, detailed criteria for realizability were set up, dividing them into financial, legal, and administrative feasibility. A study conducted by experts on the policy priority analysis of Baby Boomers showed that their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places a greater priority on its feasibility (the more feasible alternative) than desire (the more desirable option). Among the six criteria, lifestyle activities had high priority,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ve assessment alternatives for lifetime learning activities was shown to be higher for employment skills education (0.377), civil participation education (0.181), lifestyle activities (0.200), and 'lifetime activities' (06.11).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they can help shape and refine the needs of lifelong education, assess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prepare basic data for lifelong learning policies for baby boomers who are about to enter their old age.

Key words: AHP Analysis, Baby Boomer Policy, Emotional Psychology, Priority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심리 기반의 자기개발, 자아실현과 같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요구 및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최적 탐색을 위해 제1계층(상위기준) 2가지, 제2계층(세부기준) 6가지, 평가대안을 각각 5가지로 설정하였다. 제1계층에서는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¹ 강주리: 동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² 이충렬: 해양산업연구원 연구위원

³ * (교신저자) 황두경: 동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 E-mail : hdk1225@deu.ac.kr / TEL : 051-890-1238

의 문제인 ‘소망성’과 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문제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 제2계층에서 ‘소망성’의 세부기준은 형평성, 대응성, 효율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세부기준은 재정적, 법·윤리적, 정치·행정적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 6가지 중에서는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1)’ 순으로, ‘평생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관계활동(0.200)’, ‘사회봉사활동(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요구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 평생학습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감성심리,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AHP 분석방법

1. 서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2010년에 은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20년에 이 세대가 모두 65세 이상이 되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노년층의 특성과 욕구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ong, 2013).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0에서 1970년까지 경쟁적인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980년대에 취업과 결혼 등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기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후 교육기회가 확대되던 시기에 학교를 다닌 세대로, 초·중등학교 시설 확대, 고교평준화, 대학졸업 정원제 등 매우 다양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체험하며 부모세대 보다 더 높은 교육적 성취를 경험하였다(Lee, 2011).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체 인구의 14.6%, 약 711만 명을 차지하며, 2040년이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최고 연장자가 85세에 이르나, 여전히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구 집단으로 남게 된다(Statistics

Korea, 2016).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재취업, 전직,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의 진입과 같은 고용, 노동 분야 이외에도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활동이 정책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2012 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49%), 봉사를 위한 준비 교육(18%), 취업 및 창업관련 교육(124.8%)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고령자층은 하루에 4시간 55분을 학습하고 있는 25세 미만 계층과 비교해 볼 때 하루 5분 이내로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tatistics Korea, 2015),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 임금근로자는 36.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와 실제 학습시간의 이러한 차이는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 내용과 방법면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상에 따라 여성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Park, 2001),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연구(Yeo, 2005), 한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Shin, 2010) 연구 등이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 정책 지원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는 노인이 아니지만 곧 노인이 될 노화의 ‘과정’에 있는 움직임은 존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어떻게 노화과정을 경험해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들이 모두 노인이 될 2020년의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부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우리사회의 자원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들 자신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그들의 감성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계발, 자아실현과 같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 접근을 위하여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요구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AHP 분석

2.1. AHP 분석방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은 의사결정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응답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의 하나로 객관적, 주관적인 검정요인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Lee, 2011). 이 분석 기법을 통해 의사결정 문제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 간편성 및 범용성, 이론 적용의 단순성, 명확성이라는 장점으로 여러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Saaty, 1980; Saaty & Vargas, 1991). AHP는 일관성 검증을 거쳐 평가자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 가중 평균 산출 시 제외하거나 일관성 한계 범위 이내에 들어올 때까지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AHP를 적용할 때 의사결정자의 완벽한 일관성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는 응답자가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일관된 가치 판단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으

며, 비슷해 보이는 질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때 응답자는 이를 혼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T. L. Saaty에 의해 개발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감(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둘째, 다수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셋째, 불확실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넷째, 의사결정자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Aiyo & Tagao, 2012).

AHP 분석에서 일관성이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무작위 지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하여 검정하게 된다. 경험적 법칙에 의하여 일관성 비율이 10% 이내이면 평가자가 내린 항목들에 대한 판단이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20% 이내일 경우는 수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창효, 2000)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이 20% 이내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2.2. 조사대상

AHP 조사방법은 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적용하거나 혹은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6명, 대학교수 3명, 구청 및 도서관 공무원 4명, 평생교육사 4명, 기관관계자 3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자 앞으로 수행해야 할 베이비부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AHP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잡한 다기준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적 요소만이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하였다(Jo et al., 2003).

2.3. 평가기준 및 정책결정 모형

본 조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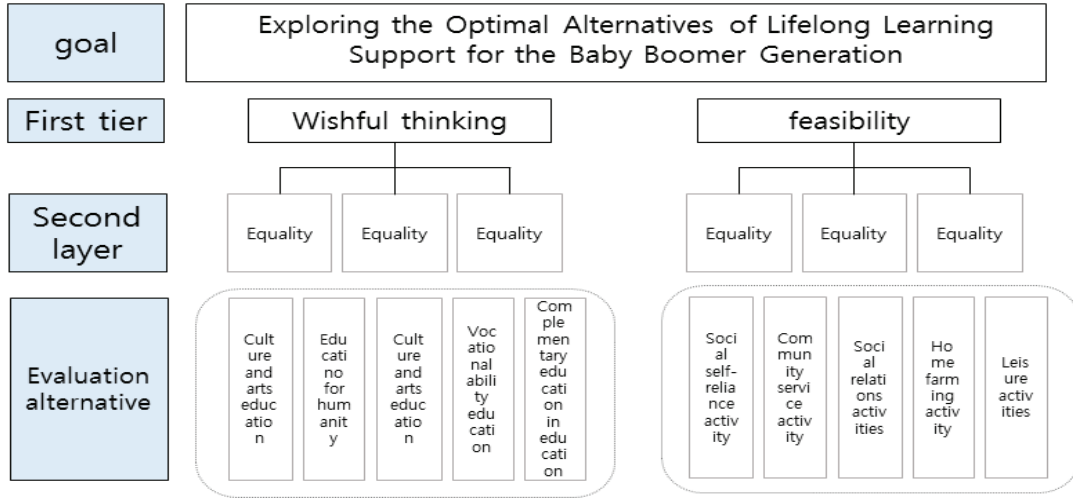


Fig. 1. Policy decision model

Table 1. Definition of criterion indicator

Upper standard	Detailed index	Definition	Upper standard	Detailed index	Definition
Wishful thinking -Which alternatives are more desirable?	Equality	Open to all citizens without discrimination	Feasibility -Which alternative is more feasible?	Financial feasibility	Availability of funds
	Correspondence	Responsibility to meet the needs of citizens and outside groups		Legal and ethical feasibility	The possibility that the recurrence of the ordinance, the availability of amendmen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policy will not be subject to moral and ethical sanctions
	Efficiency	Maximum yield with minimal input The degree to which the output had been expected to have an effect in light of the goals set earlier in the day		Political and pedantic feasibility	The realization of the will and avail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anpower, etc.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and councils

습 지원의 최적 탐색'을 위해 제1계층(상위기준) 2가지, 제2계층(세부기준) 6가지, 평가대안으로 '평생 학습활동' 5가지, '평생실천활동' 5가지로 각각 설정하였다. 특히, 제1계층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¹⁾의 경우, AHP 분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Lee & Yoon et al.(2012)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치 기준 중에서 연구진과 관계 기관전문가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일부기준을 조정하여 설정하였다.

제1계층에서는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

제인 '소망성'과 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문제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 제2계층에서 '소망성'의 세부기준은 형평성, 대응성, 효율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세부기준은 재정적, 법·윤리적, 정치·행적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안과 평가기준을 토대로 설계된 정책 결정 모형은 Fig. 1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제1계층(상위기준)과 제2계층(세부기준)의 지표정의는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1) Lee & Yoon et al.(2012) 저서(새 행정학)에서 소망성의 정책 평가 기준은 노력,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정책평가 기준은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법·윤리적, 정치적 실현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비교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되, 응답자의 조사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기준을 조정하여 설정하였음을 밝혀둠.

3. 연구결과

3.1. AHP 분석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최적 대안 탐색'을 위해 2015. 10. 29. ~ 11. 30. 까지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조사의 일관성(CR)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응답자에게 재확인 절차를 거쳤고, ‘Expert choice 2000’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1.1. 소망성 및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분석

제1계층의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과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 수혜자의 요구와 특성이 반영된 실천성과 현실성이 높은 평생교육활동의 요구로 판단된다.

Table 2. Results of priority analysis of first tier

Sortation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First tier	Feasibility	0.622	1
	Wishful thinking	0.378	2

이를 다시, 제2계층의 소망성 3개요소와 실현가능성 3개요소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소망성’ 차원에서는 형평성(0.521), 효율성(0.290), 대응성(0.189) 순으로, ‘실현가능성’ 차원에서는 재정적(0.445), 정치·행정적(0.347), 법·윤리적(0.208)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망성’ 차원에서는 평생교육활동의 저변성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높게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Table 3. Results of priority analysis of Layer 2

Sortation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First tier	Second layer		
Wishful thinking (L:0.378)	Equality	0.521	1
	Efficiency	0.290	2
	Correspondence	0.189	3
Feasibility (L:0.622)	Financial feasibility	0.445	1
	Legal and ethical feasibility	0.347	2
	Political and pedantic feasibility	0.208	3

3.1.2. 평가대안 우선순위 분석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Table 4와 같이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꼽고 있으며, 특히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평생실천활동(0.703)’의 중요성을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ive importance of valuation alternatives

Sortation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Wishful thinking (L:0.378)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513	1
	Lifelong Learning Activity	0.487	2
Feasibility (L:0.622)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703	1
	Lifelong Learning Activity	0.297	2

Table 5. Results of priority analysis by detail element

Sortation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Wishful thinking (L:0.378)	Equality (L:0.521)	Lifelong Learning Activity	0.559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441
	Efficiency (L:0.290)	Lifelong Learning Activity	0.370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630
	Correspondence (L:0.189)	Lifelong Learning Activity	0.447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553
Feasibility (L:0.622)	Financial (L:0.445)	Lifelong Learning Activity	0.222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778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0.347)	Lifelong Learning Activity	0.315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685
	Law, Ethical (L:0.208)	Lifelong Learning Activity	0.397
		Lifelong practical activity	0.603

Table 5와 같이 세부요소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소망성’ 차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평생학습활동(0.559)’을 가장 높게 꼽았고, ‘실현가능성’ 차원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평생실천활동(0.778)’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소망성’ 차원의 저변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높게 반영한 결과와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망성’의 효율성과 대응성, ‘실현가능성’의 정치·행정적, 법·윤리적 평가대안은 모두 ‘평생실천활동’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 평생학습활동 대안평가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0)’, ‘학력

보완교육(0.161)’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평생학습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실제적 적용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망성’ 차원에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직업능력교육(0.341)’, ‘시민참여교육(0.190)’, ‘문화예술교육(0.170)’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실현가능성’ 차원에서는 ‘직업능력교육(0.400)’, ‘학력보완교육(0.175)’, ‘시민참여교육(0.174)’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의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활동 및 정책적 지원에 있어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6.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ve assessment alternatives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377	1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180	2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61	3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45	4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37	5

Table 7.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assessment options at the 'potential' and 'realisability' levels

Sortation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Wishful thinking (L:0.378)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341	1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190	2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70	3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63	4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36	5
Feasibility (L:0.622)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400	1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75	2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174	3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30	4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21	5

Table 8. Priority analysis of desire and feasibility by detailed elements

Sortation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First tier	Second layer			
Wishful thinking (L:0.378)	Equality (L:0.521)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264	1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223	2
		culture and arts education	0.207	3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204	4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02	5
	Efficiency (L:0.290)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483	1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84	2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40	3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097	4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096	5
	Correspondence (L:0.189)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341	1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237	2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56	3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52	4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14	5
Feasibility (L:0.622)	Financial (L:0.445)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463	1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49	2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42	3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131	4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15	5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0.347)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398	1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205	2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79	3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12	4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06	5
	Law, ethical (L:0.208)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275	1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221	2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214	3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58	4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32	5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의 세부요소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직업능력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민참여교육’과 ‘학력보완교육’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평생학습은 단순한 취미와 배움의 차원을 넘어 보완교육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3.1.4. 평생실천활동 대안평가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의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전문가들은 평가대안 중 ‘사회자립활동(0.412)’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활동(0.200)’, ‘사회봉사활동(0.161)’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자립활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경제적

Table 9. Relative importance of evaluation alternatives for lifetime Real-life activities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412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200	2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61	3
home farming activity	0.125	4
leisure activities	0.102	5

Table 10. The relative importance of evaluation alternatives for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Sortation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Wishful thinking (L:0.378)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392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232	2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83	3
	Leisure activities	0.114	4
	home farming activity	0.080	5
Feasibility (L:0.622)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424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183	2
	home farming activity	0.152	3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47	4
	Leisure activities	0.094	5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망성’ 차원에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전문가들은 ‘사회자립활동(0.0.392)’, ‘사회관계활동(0.232)’, ‘사회봉사활동(0.183)’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실현가능성’ 차원에서는 ‘사회자립활동(0.424)’, ‘사회관계활동(0.183)’, ‘귀농귀촌활동(0.152)’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소별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으며, 베이비부머의 ‘사회자립활동’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사회관계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특히, ‘소망성’ 차원에서는 ‘귀농귀촌활동’이 낮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지만, ‘실현가능성’ 차원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사회자립활동(0.462)’, ‘사회관계활동(0.199)’ 다음으로 ‘귀농귀촌활동(0.137)’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윤리적 측면에서는 ‘사회자립활동(0.371)’ 다음으로 ‘귀농귀촌활동(0.182)’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귀농귀촌활동’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실천

활동’에 있어 ‘귀농귀촌활동’에 대한 최근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3.1.5. 가중치를 부여한 평가대안별 우선순위

‘평생학습활동’과 ‘평생실천활동’ 세부요소 간 평가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사회자립활동(0.256)’을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꼽았고, ‘직업능력교육(0.143)’, ‘사회관계활동(0.124)’, ‘사회봉사활동(0.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Table 12에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영역 가중치가 높은 ‘평생실천활동’의 세부요소가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났지만, ‘직업능력교육’과 ‘귀농귀촌활동’, ‘시민참여교육’ 등에 대한 평가대안 역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어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평가대안별 가중치 우선순위는 상위 2개의 평생활동영역(평생학습활동,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각각의 5개 세부요소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2개의 평생활동영역과 각각의 5개 세부요소간의 가중치 합산으로 상호간의 표준화(standardization) 작업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10개 평가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하였음

Table 11. Relative importance of evaluation alternatives for lifetime Real-life activities

Sortation		Evaluation alternative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First tier	Second layer			
Wishful thinking (L:0.378)	Equality (L:0.521)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336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264	2
		community service activity	0.213	3
		leisure activities	0.119	4
		home farming activity	0.068	5
	Efficiency (L:0.290)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540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129	2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16	3
		home farming activity	0.112	4
		leisure activities	0.103	5
	Correspondence (L:0.189)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410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230	2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62	3
		leisure activities	0.113	4
		home farming activity	0.085	5
Feasibility (L:0.622)	Financial (L:0.445)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462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173	2
		home farming activity	0.137	3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26	4
		leisure activities	0.102	5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0.347)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415	1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199	2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63	3
		home farming activity	0.150	4
		leisure activities	0.073	5
	Law, ethical (L:0.208)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371	1
		home farming activity	0.182	2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178	3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61	4
		leisure activities	0.108	5

Table 12. Results of a priority analysis of evaluation alternatives between detail elements

Area	Evaluation alternative	Individual weighting	Zone weighting	Weighted sum	Priority
Lifelong practical activity	social self-reliance activity	0.412	0.622	0.256	1
Lifelong Learning Activity	vocational ability education	0.377	0.378	0.143	2
Lifelong practical activity	social relations activities	0.2	0.622	0.124	3
	community service activity	0.161	0.622	0.100	4
	home farming activity	0.125	0.622	0.078	5
Lifelong Learning Activity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0.18	0.378	0.068	6
Lifelong practical activity	leisure activities	0.101	0.622	0.063	7
Lifelong Learning Activity	complementary education in education	0.161	0.378	0.061	8
	culture and Arts education	0.145	0.378	0.055	9
	education for humanity education	0.137	0.378	0.052	10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2개 부분, 평생학습활동과 평생실천 활동으로 영역화하였다. 베이비부머 평생학습활동은 개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학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평생실천활동은 개인의 경제활동, 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창조적 대응, 능동적 참여를 포함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AHP 분석방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해 본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모두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꼽고 있으며, 특히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평생실천활동(0.703)’의 중요성을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다.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0)’, ‘학력보완교육(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고,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의 경우 전문가들은 ‘사회관계활동(0.200)’, ‘사회봉사활동(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평생학습활동’과 ‘평생실천활동’ 세부요소의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관계전문가 20명) 평생실천활동의 ‘사회자립활동(0.256)’, 평생학습활동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직업능력교육(0.143)’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평생학습활동’ 및 ‘평생실천활동’의 ‘사회관계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여와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이 문화예술, 인문교양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학습과 봉사, 학습과 사회적 참여, 학습과 사회관계, 학습과 경제활동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사회연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평생학습 대안은 ‘귀농귀촌활동’이며, 전문가들은 새로운 ‘평생학습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평생학습의 정책대안으로써 ‘귀농귀촌활동’ 영역을 단시간에 현실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되면서 관련

된 정책들은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파편화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베이비부머 대상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력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고령화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베이비부머의 은퇴 대비를 위한 평생학습 정책 또한 단기적이고 소극적 입장에서 아닌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생 전반기 진학과 취업 준비 이후, 인생 후반기에 걸친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 2차 학습”에 대한 평생학습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된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는 이러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퇴직을 앞둔 50세 전후의 기대여명이 약 30년 이상으로, 베이비부머 및 (중)고령자는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며, ‘활동적 고령(active ageing)’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평생교육적 관점의 정책적 시각전환으로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ijo, K., & Tagao O. (2012). *AHP for Strategic Decision Making*, Seoul: Cheng Lam.
DOI: 10.1007/978-1-85233-864-0_1
- Bae, H. O. (2012). The effect of baby boomer generation's elderly welfare desire on age-ready recogn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Formosa, M. (2012). Lifelong education for older adults in Malta: Current trends and future vision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9(2), 271-292.
DOI: 10.1007/s11159-012-9282-8
- Guimarães, P. (2013). Reinterpreting lifelong learning: meanings of adult education policy in Portugal, 1999–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2(2), 135-148. DOI: 10.1080/02601370.2012.733970
- Jung, K. H., Oh, Y. H., Hwang, N. H., Shin, H. G., & Nam, H. J. (2013).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baby boomers and pre- and post-future generation, *Korea Health and Social Affairs*, 64(1), 15-24.
DOI: 10.3138/9781442628151-005
- Kim, J. H., & Shin, D. E. (2016). Classification of research trends and exploration of knowledge structure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Research*, 22(4), 27-53.
DOI: 10.23840/agehrd.2016.48.1.47
- Lee, C. H. (1999). Application of analyzing hierarchy process in the selection of strategic industries in Busan. *Korea Management Science Association*, 16(1), 11-23.
- Lee, J. S., Yoon, Y. J., Kang, I. J., Kwak, C. K., Chae, W. H., Lee, J. W., & Ha, J. B. (2012). (New) *Public administration*. Seoul: Dae-young Cultural History.
- Lee, M. (201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green technology manpower policy using ahp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nt*, 11(6), 350-359. DOI: 10.5392/JKCA.2016.16.08.292
- Lee, S. K. (2011). Th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diversity of job experience of baby boomers, *Journal of labor review*, 71, 38-49.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2006). *Social trends in Korea*.
- National Institute for the Promotion of Lifetime Education. (2012). *Training Demand Survey*.
- Park, S. J.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Korea*.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Park, M. M., Nam, E. W., Lee, H. J., & Shin, T. S. (2008). A study on the priority determination of health city project evaluation criteria in the analytic hierarchy decision method. *Korean Association for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25(3), 139-151.
- Saaty, T. L. (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Decision making in complex environments*, CA:

- Wadsworth. DOI: 10.1007/978-1-4613-2805-6_12
- Saaty, T. L., & Vargas, L. G. (1994). *Decision making in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ittsburgh, PA: RWS Publications. 331-335.
DOI: 10.1016/0898-1221(95)90109-4
- Shin, M. S. (2010). A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 the underprivileged. *Journal of Korea Dongbuk Anonchong*, 15(4), 371-394.
- Song, H. G. (2013). *They don't cry out*. Goyang: Iwawu.
- Statistics Korea. (2016). *National old-age panel survey*,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
- Yang, H. K. (2017). A study on the change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 Governance Society*, 29(1), 371-391.
DOI: 10.17317/tjle.29.1.201703.89
- Yeo, S. I. (2005). A study on the policy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J. S. (2013). Determination of policy priority for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in Gyeongsangnam-do through AHP analysis method. *Journal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ssociation*, 13(5), 518-526.
DOI: 10.5392/jkca.2013.13.05.517

원고접수: 2019.03.05

수정접수: 2019.03.18

게재확정: 2019.03.19